

함께하는교회를위해~교분,참여,그리고선교.

제16회 시노도스에 대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3년 10월에 로마에서 제16회 시노도스(세계대표주교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주제는, '함께 하는 교회를 위해~ 화합, 참여, 그리고 선교' 입니다.

시노도스는 '함께한다'는 뜻의 그리스어로 일정시에 만나는 주교들의 집회를 말합니다.전 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함께 한다는 제2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노드에서는, 신복음화, 가정, 젊은이, 아마존등의 테마로 행해졌습니다만, 이번은, 확실히, 함께하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서의 「시노다리티(시노드적인)」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함께 가는 교회」로서의 교제의 본연의 자세, 공동체의 다양성 안에서 함께 참가하는 것,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보다 잘 완수해 가는 본연의 자세를 찾으려는 과정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뜻에 따라 이번 시노드의 행보는 나눔과 헌신의 축적이 시노드의 소중한 행보, 미래를 향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작업은 그 첫 단계로, 바티칸에서 준비된 10개의 주제를 나누어 오사카 교구 안에서 2022년 1월까지 마무리합니다. 제2단계는 2022년 가을부터 지역·대륙 레벨에서의 작업이 있어, 최종 단계가 2023년 10월의 로마에서의 시노드 총회가 됩니다. 이 총회로부터 1년 후 정도에 시노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황의 사도적 권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향후의 오사카 교구의 시노드적인 행보에도 위의 내용을 살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나눔을 통해 시노드적인 교회체험을 쌓아나가 21세기 복음선교를 향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사카교구 시노도스 담당팀

2021년 10월 27일

각각의 자리에서 다음의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노드를 위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이 로고마크의 배경에 있는 큰 나무는 지혜와 빛으로 가득 차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깊은 생명력과 희망의 표시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성체를 실어 나릅니다. 손이나 날개처럼 펼쳐진 수평의 가지는 동시에 성령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걷다'라는 뜻의 시노드의 어원에 있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나무'에서 불어오는 힘으로 연결되어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실루엣은 전 인류의 다양성을 표현합니다. 어린이, 젊은이, 노인, 남성, 여성, 신도, 수도자, 가족, 독신자, 건강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것은,

기쁨의 표시인 선명한 색에 의해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주교나 수도자는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아이들, 젊은이들입니다.하늘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를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자식과 같은 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연상합니다.

시노드의 의의와 목적 소개

교황청 시노도스 사무국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문서, 안내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전문은 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일부를 발췌하여 시노드에 대한 의의와 의도를 소개합니다.

이 시노도스가 개최되고 있는 배경을 생각나게 합니다.몇 가지 예를 들면 팬데믹, 지역 분쟁과 국제 분쟁,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증대, 이주자,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 인종 차별, 폭력, 박해, 인류 전체에 걸친 불평등 확대 등입니다.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성직자와 봉헌생활자의 성적 학대, 파워 해리스먼트, 도덕적 해리스먼트(모럴 해리스먼트)를 위하여' 미성년자나 약한 입장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 배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노달리티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 교회가 쇠신되고 하느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경청하는 길입니다.그러나 이렇게 함께 여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더 깊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동료인 기독교 제파나 다른 신앙 전통과 함께 인류 가족 전체를 감싸는 예언적인 증거로서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다양한 방향(지역에서 세계까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또 시노드적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도록 성령이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이번 시노드의 목적은 하느님의 백성들 전체로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속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살아계신 성전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또 서로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시대의 표시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그 멤버 한사람 한사람의 참가를 통해, 공통의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교 속에서 전진합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장기적으로 보다 시노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어떻게 전진해야 할지 함께 식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되돌아 보고, 나누기 위한 10가지 질문은, 「시노덜리티의 경험이라는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 청취의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그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게 배제된 사람들의 소리도,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교구의 바람직한 형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의 목적이라고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이 교구 국면은 소교구와 교구가 함께 시노드 여행을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회이며, 그 결과 각 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노드적인 방법과 이치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시노드적인 길을 가는 지방교회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가운데서 '시노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천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시노다스는 교회의 화합, 참여, 선교를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노다리티의 길을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행해 나가는 단계가 중요합니다.이 이행은 전 세계 모든 지방교회에 널리 퍼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시노드의 프로세스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또 도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https://www.cbcj.catholic.jp/wp-content/uploads/2021/10/16synod_vademecum_jp20211012.pdf)

일본 가톨릭교회도 제2바티칸 공회의(1962~1965년)의 성과로 쇄신을 요구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특히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일본 방문에 의해 1983년에는 '일본 교회의 기본방침과 우선과제'라는 주교단 문서가 나왔고 1987년에는 제1회 복음선교추진전국회의(NICE-1)가 교토에서 개최되어 많은 분야에 걸친 14개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그 후, 1993년에 나가사키에서 제2회 복음선교 추진 전국 회의(NICE-2)가 「가정」을 테마로 개최되어 여러가지 구체적인 쇄신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함께」는 일본의 교회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로 여기저기서 회자되어 사용되었습니다.또, 오사카 교구에서도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받아들여 「신생 계획」이라고 하는 교회 쇄신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친교'과 '증거'가 이 신생계획의 표어였습니다.시노드가 목표로 하는 「함께 여행하는」교회는, 최근 수십년의 우리의 걸음과도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